

現代社會테러리즘의 社會學的 解釋

〈目 次〉

I. 세가지 出發 立場	IV. 테러리즘의 構造的 原因
II. 테러리즘의 概念과 類型	V. 微視行爲의 分析
III. 國家에 의한 體制維持의 테러活動	VI. 맺는말

韓相震 *

I. 세가지 出發立場

테러리즘에 대한 論議는 問題領域에 따라 오늘날 매우 다양하게 展開되고 있으나 (A. Lakos, 1986), 以下の 論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基本視角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테러리즘을 어떤 시각에서 조망할 것인가의 理論的 問題가 提起된다. 슈미트(A. Schmid, 1988, p.49)는 이에 관해 “公式的” 視角, “抵抗的” 視角, “大衆的” 視角, “代案的” 視角을 구별하고 있는데, ‘公式的’ 視角은 주로 政府統計 資料에 依存하여 政府의 公式的 立場을 反映하는 것임에 반해, ‘抵抗的’ 視角은 테러行爲者의 立場에서 問題를 보는 것을 뜻한다. ‘大衆的’ 視角은 商業的 매스 미디어같은 곳에서 테러리즘에 接近하는 것을 뜻하고, ‘代案的’ 視角은 公式的 見解로부터 거리를 지키면서도 抵抗的 視角에 빠지지 않는 均衡있는 接近으로 提示되고 있다. 이 區分에서 보자면 필자의 立場은 代案的 視角이 되겠으나, 그 性格을 일단 “社會學的”인 것으로 表現하고 싶다.

社會學的 視角은 社會現象의 構造的 原因을 강조한다. 이것은 테러리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테러리즘을 道德的으로 譴타하고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現象이 오늘날 國際關係에서 또는 個別國家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 擴散되고 있는데 대한 構造的 原因을 먼저 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互視-構造的 分析’으로 보겠다. 아울러 社會學的 視角은 테러行爲의 展開와 이를 둘러싼

* 서울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具體的 爭點들, 예컨대 테러行爲의 目的, 戰術, 이데올로기; 테러行爲者의 性格, 信念體系, 集團活動; 테러行爲를 支援해 주는 諸般 社會的 機制들; 이에 대한 國家權力 또는 超國家組織들의 對應樣式들을 檢討한다. 이것을 필자는 便宜上 ‘微視-行爲의 分析’으로 보겠다. 따라서 綜合하자면 필자의 立場은 ‘巨視-構造의 分析’과 ‘微視-行爲의 分析’을 結合함으로써 테러리즘을 社會學的으로 考察하려는 것이다.

물론, 테러리즘의 多樣한 類型과 內容 가운데 과연 어떤 類型의 테러리즘을 주로 다룰 것인가의 選擇의 問題가 提起된다. 모든 테러行爲에 대한 一般的 論議는 明白히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具體的 論議를 위해서는 一定的한 分類도식이 필요해진다. 이에 관한 시도는 잠시 뒤로 미루겠다. 여기서 指摘할 點은 테러리즘은 그 攻擊目標가 國家이건, 企業이건, 軍隊이건 아니면 國際組織이건 간에 既存體制에 도전해 가는 형태로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전을 抑壓하고 壓殺하려는 國家政策의 일환으로서 부단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에 의한 테러리즘을 多量한 次元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세째, 論議에 作用하는 道德的, 倫理的 立場을 分明히 할 필요가 있다. 國家에 의한 모든 抑壓的·挑發的 테러리즘에 대한 道德的 拒否와 질타는 人間의 양식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본다. 問題는 既存體制에 抵抗的인 테러리즘을 어떤 倫理的 立場에서 볼 것인가에 있다. 이에 관해 우리는 두가지 상반되는 立場의 限界를 다같이 直視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쪽에는 自由民主主義 擁護者들이 있으며, 그들은 테러리즘을 狂信的, 非合理的 權力追求의 手段으로 보아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해 이에 대한 效率的인 國家對應策을 促求한다. 이 立場은 쉽게 理解할 수 있는 것이지만, 自由民主主義의 토양위에서(西歐社會의 경우) 왜 테러리즘이 나오는가에 대한 좀 더 깊은 構造的 省察, 自己反省의 省察을 嚮친 可能性이 있다.

반대로, 다른 한 쪽에 있는 테러行爲者들은 社會의 絶對多數는 權力集團의 성장 조작에 의해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보고, 무장투쟁을 통해 社會를 變革시키기가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이 立場은 期待했던 結果를 실제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社會學的 理由外에도, 暴力手段에 의해 變化를 追求한다는 점에서 倫理的으로 正當化될 수 없다. 다시 말해, 變化에의 動機(目標)를 合法的 手段으로 追求해가야만 正當性이 確保된다는 것이다. 이런 立場에서 自由民主主義의 고수가 아니라 이

것의 潛在力을 더욱 고양시키는 制度改革의 倫理觀을 提案하고 싶다.

II. 테러리즘의 概念과 類型

테러리즘에 대한 一般的 概念規定은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觀點에 따라 테러리즘의 內容과 性格이 달라질 뿐 아니라, 聯關된 다른 問題로서 예컨대 暴力과 테러, 테러리즘과 무장계렬라, 強壓的 軍事作戰과 테러의 關係등을 明確히 設定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운톤(Thornton, 1964, p.73)의 고전적인 概念定義에 의하면, 테러는 “暴力의 使用이나 危脅을 통해 非正常的 方式으로 政治行爲에 影響을 주도할 고 안된 象徵的 行爲”이다. 초점은 테러行爲의 非正常性 象徵性에 있다. 즉 테러行爲의 結果(爆破, 放火, 死亡, 負傷等)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그 行爲가 가져오는 象徵的 效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概念은 아직 충분히 精巧化된 것은 아니다.

현행 美國務省에서 근래에 使用한 테러리즘의 概念規定은 다음과 같다.

個人이나 集團이 確立된 政府權威에 의한 것이건 아니던 이에 抵抗하는 것이건 간에 政治的 目的으로 暴力을 使用하거나 危脅하는 行爲로서, 直接的인 희생자 또는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目標集團들에게 影響을 미칠 의도로 이루어지는 行爲
(US Department of State, 1983: recited from Stohl, 1988, p.56)

이 概念은 相當히 包括적이고 國家테러를 國家에 抵抗하는 테러와 함께 強調했다는 點에서, 또 倫理的인 評價를 概念的으로 除外하면서 多樣한 現象을 記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무난한 것처럼 보인다. 스톨(Stohl, 1988, p.156)은 위의 概念規定을 따르면서 테러리즘은 ‘政治的 目的으로 暴力을 使用하거나 危脅하는 의도적 行爲’라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計算된 集團에게 影響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行爲이다. 단순히 犧牲者를 除去시키는 暴力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行爲에 影響을 미치려는 意識化된 戰略·戰術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法の 觀點에서 볼 때 ‘非合法的’ 手段이지만 그러나 그 效果를 事前에 計算하고 行動한다는 點에서 意圖的, 合理的인 行爲을 지니고 있다.

것의 潛在力을 더욱 고양시키는 制度改革의 倫理觀을 提案하고 싶다.

II. 테러리즘의 概念과 類型

테러리즘에 대한 一般的 概念規定은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觀點에 따라 테러리즘의 內容과 性格이 달라질 뿐 아니라, 聯關된 다른 問題로서 예컨대 暴力과 테러, 테러리즘과 무장계렬라, 強壓的 軍事作戰과 테러의 關係등을 明確히 設定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운톤(Thornton, 1964, p.73)의 고전적인 概念定義에 의하면, 테러는 “暴力의 使用이나 危脅을 통해 非正常的 方式으로 政治行爲에 影響을 주도할 고 안된 象徵的 行爲”이다. 초점은 테러行爲의 非正常性 象徵性에 있다. 즉 테러行爲의 結果(爆破, 放火, 死亡, 負傷等)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그 行爲가 가져오는 象徵的 效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概念은 아직 충분히 精巧化된 것은 아니다.

현행 美國務省에서 근래에 使用한 테러리즘의 概念規定은 다음과 같다.

個人이나 集團이 確立된 政府權威에 의한 것이건 아니던 이에 抵抗하는 것이건 간에 政治的 目的으로 暴力을 使用하거나 危脅하는 行爲로서, 直接的인 희생자 또는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目標集團들에게 影響을 미칠 의도로 이루어지는 行爲
(US Department of State, 1983: recited from Stohl, 1988, p.56)

이 概念은 相當히 包括적이고 國家테러를 國家에 抵抗하는 테러와 함께 強調했다는 點에서, 또 倫理的인 評價를 概念的으로 除外하면서 多樣한 現象을 記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무난한 것처럼 보인다. 스톨(Stohl, 1988, p.156)은 위의 概念規定을 따르면서 테러리즘은 ‘政治的 目的으로 暴力을 使用하거나 危脅하는 의도적 行爲’라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計算된 集團에게 影響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行爲이다. 단순히 犧牲者를 除去시키는 暴力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行爲에 影響을 미치려는 意識化된 戰略·戰術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法の 觀點에서 볼 때 ‘非合法的’ 手段이지만 그러나 그 效果를 事前에 計算하고 行爲한다는 點에서 意圖的, 合理的인 行爲을 지니고 있다.

의 觀點에서 본다면, 自身の 分割支配領域이 아닌 다른 地域에서의 變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該當國家의 安定과 正當性を ぶ너뜨리는 테러行動을 支援해 준다던 이것도 여기에 該當될 것이다.

C類型은 社會集團에 의한 體制維持的 테러로서 既存體制에 挑戰해 오는 진보세력, 政治指導者, 知識人, 言論人, 勞動運動家등을 對象으로 하여 意圖된 暴力手段을 행사하는 類型을 가리킨다. 美國의 人種의 테러, 예컨대 Ku Klux Klan 活動과 독일의 신파시스트 테러리즘은 이에 속한다. 우익·보수진영의 이 테러리즘은 國際的 테러로 發展하기도 한다.

마지막 D類型은 社會集團에 의한 體制挑戰的 테러로서 흔히 좌익노선의 테러리즘에 의해 代表된다. 이 경우 資本主義, 帝國主義, 軍事主義등의 秩序를 ぶ너뜨린 動機로 이린 秩序의 象徴인 人物이나 設備, 組織을 對象으로 하여 意圖된 暴力手段을 행사한다. 이것의 예는 무수히 많으나 독일의 赤軍派(RAF),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의 活動이 代表的이다.

이렇게 4가지 類型이 區別되나, 이 중에서 效果가 가장 深層的인 것은 國家에 의한 體制維持的 테러 類型이라 할 수 있다. 특히 美·蘇열강의 世界分割政策의 테두리하에서 이루어지는 테러리즘은 매우 多面的이며, 餘他の 테러리즘 類型들에게도 中대한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國家에 의한 體制維持的 테러活動

여기서 ‘體制’란 便宜上 두가지 次元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나는 美·蘇열강이 分割統治하는 水準에서 보는 世界體制라는 뜻이다 (Stohl, 1988). 예컨대 現實政治에서 南美는 美國의 統制하에 있고 東歐는 소련의 統制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國家가 國際的 힘의 수직 질서를 전면 이탈하는 事態가 일어나지 않도록 美·蘇열강은 單位國家의 動向을 注視·監督하고 軍事裝備, 技術情報등을 통해 單位國家 政府가 內部動向을 適切히 統制할 수 있도록 支援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直接 軍事力의 제배치등을 통해 逸脫傾向에 介入할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의 觀點에서 본다면, 自身の 分割支配領域이 아닌 다른 地域에서의 變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該當國家의 安定과 正當性を ぶ너뜨리는 테러行動을 支援해 준다. 이것도 여기에 該當될 것이다.

C類型은 社會集團에 의한 體制維持的 테러로서 既存體制에 挑戰해 오는 진보세력, 政治指導者, 知識人, 言論人, 勞動運動家등을 對象으로 하여 意圖된 暴力手段을 행사하는 類型을 가리킨다. 美國의 人種의 테러, 예컨대 Ku Klux Klan 活動과 독일의 신파시스트 테러리즘은 이에 속한다. 우익·보수진영의 이 테러리즘은 國際的 테러로 發展하기도 한다.

마지막 D類型은 社會集團에 의한 體制挑戰的 테러로서 흔히 좌익노선의 테러리즘에 의해 代表된다. 이 경우 資本主義, 帝國主義, 軍事主義등의 秩序를 ぶ너뜨린 動機로 이린 秩序의 象徴인 人物이나 設備, 組織을 對象으로 하여 意圖된 暴力手段을 행사한다. 이것의 예는 무수히 많으나 독일의 赤軍派(RAF),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의 活動이 代表的이다.

이렇게 4가지 類型이 區別되나, 이 중에서 效果가 가장 深層的인 것은 國家에 의한 體制維持的 테러 類型이라 할 수 있다. 특히 美·蘇열강의 世界分割政策의 테두리하에서 이루어지는 테러리즘은 매우 多面的이며, 餘他の 테러리즘 類型들에게도 中대한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國家에 의한 體制維持的 테러活動

여기서 ‘體制’란 便宜上 두가지 次元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나는 美·蘇열강이 分割統治하는 水準에서 보는 世界體制라는 뜻이다 (Stohl, 1988). 예컨대 現實政治에서 南美는 美國의 統制하에 있고 東歐는 소련의 統制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國家가 國際的 힘의 수직 질서를 전면 이탈하는 事態가 일어나지 않도록 美·蘇열강은 單位國家의 動向을 注視·監督하고 軍事裝備, 技術情報등을 통해 單位國家 政府가 內部動向을 適切히 統制할 수 있도록 支援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直接 軍事力의 제배치등을 통해 逸脫傾向에 介入할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칠레의 經驗에서 드러났듯이 逸脫을 事前에 막지 못했을 경우에는 事後에라도 多樣한 水準에서 多樣한 方式으로 新秩序의 破壞를 促進시키는 테러리즘을 支援함으로써 窮極적으로 體制를 원상회복시키려는 努力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單位國家를 體制의 單位로 보는 境遇이다. 이때 테러리즘은 두가지 水準에서 提起되는데, 서로 적대적인 單位國家들이 政治的 目的으로 테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라면, 國內 政治過程에서 權力層이 既存의 權力을 維持하거나 強化시키기 위하여 이에 抵抗하는 勢力에 計算된 暴力手段을 使用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優先 世界體制的 次元에서 테러리즘을 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 테러리즘은 크게 테러적 強壓外交, 은밀한 國家테러, 代行 테러리즘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M. Stohl, 1988).

테러적 強壓外交란 相對國家가 어떤 要求에 應하지 않을 경우 그 結果가 참을수 없는 恐怖와 損失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明示적으로 보여주는 行動을 가리킨다. 軍事力의 재배치, 軍事作戰이 이런 意圖로 實施된다. 1980年の 폴란드 事態에서 소련의 軍事的 政治外交的 行動은 1953年 동독개입, 1956年 항거리개입, 1968年 체코개입의 先례에서 볼 때, 어떤 效果를 노리는 것인가는 分明했다. 즉 暴力手段의 危脅을 誇示함으로써 自由化 물질을 진제하려 했던 것이다. 美國 역시 이面에서 先例의 예외가 아니다. 1972年の 하노이 크리스마스 暴擊은 테러적 強壓外交의 보기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근래에는 니카라과 政策에 잘 드러나 있다.(Bleichman and Kaplan, 1978).

은밀한 國家테러는 相對方에게 복종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恐怖를 주고 混亂을 불러일으킴으로써 該當政府를 약하게 만들어 결국 뒤에 讓步하도록 誘引하는 테러이다. 아옌테 통치하의 칠레에서 美國 CIA가 벌인 테러支援活動은 이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事例로 꼽힌다.

CIA는 당시 칠레 參謀總長이었던 Rene Schneider의 拉致, 暗殺에 5萬\$을 支拂했고(Johansen, 1980, p.210) 칠레정국의 교란을 위해 최소한 700萬\$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옌테 政府가 結局 軍部 쿠데타에 의해 무너졌을 때, Ford 大統領은 이것이 칠레國民과 美國國民의 이해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라고 宣傳하였다. 이것은 美國 支配下의 南美大陸에서 社會主義政府에로의 轉換은 先사 그

것이 選舉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美國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看做될만 하다(Halperin et al,1976,p.28).

代行 테러리즘은 國際的 테러組織을 國家가 支援함으로써 直接 介入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間接的으로 테러리즘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테러組織에 軍事裝備, 技術, 資金, 게릴라 訓練등을 提供해 준다. 國際테러리즘은 組織間的 連結, 資金, 訓練등의 面에서 國家支援이 없이는 不可能한 實情이며, 특히 소련은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하고 있고, 또 西方世界的 교란은 결국 소련의 利得이 된다는 觀點에서 배후에 소련이 作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일어난다. 예컨대 中美, 南美, 中東 등에서 組織化된 國際테러리즘과 소련의 關係가, 비록 確實한 證據는 없다 하더라도, 假定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 古巴 避難民組織의 테러活動을 支援한 것이 보기가 될 것이다. 代行 테러리즘의 다른 한 領域은 미 소연강이 支配權下의 權威主義 政府에게 필요한 武器, 裝備, 技術을 支援해 줌으로써 이들이 體制 挑戰的 勢力에 대해 對內的 테러活動을 效率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편 單位國家를 體制로 보는 水準에서 보면, 테러리즘은 시대적 國家間的 關係에서 중요한 爭點이 된다. 中東 이슬람國家와 이스라엘 사이의 테러交換이 단적인 보기이다. 1983年 버마 광군事件, 1987年 KAL機 爆破事件에서 드러나듯이, 北韓이 갈수록 테러적 手段을 많이 使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理解할 수 있다. 이처럼 國際 테러리즘에는 國家의 直接·間接的인 介入이 있기 쉬우며 한쪽의 計算된 暴力은 다른 쪽의 計算된 暴力을 불러오는 傾向이 있다.

또한 單位國家 사이의 테러리즘은 地域的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原因과 效果의 面에서 世界體制에 連結되거나 立場의 直接·間接 구상에 의해 影響을 받기도 한다.

끝으로 國家 테러리즘의 중요한 領域은 權力集團에 의한 國內的 테러活動이다. 대체로 全體主義 國家에서 테러리즘이 體制 構築時期에 政治的 統制의 가장 強壓的인 手段으로 널리 活用되는 傾向이 있으나, 體制가 漸次 유연화되면서 이런 傾向은 사라진다. 스탈린과 히틀러의 테러리즘은 단적인 보기이다. 이외에도 軍事政權의 性格이 강한 權威主義 國家에서 拷問, 強制收容所, 殺人等の 테러手段이 國家 權力에 의해 廣範圍하게 使用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政權테

테러리즘'은 결국 抵抗勢力에게 恐怖와 不安感을 깊게 擴散시킴으로써 이들이 權威主義 體制에 복종하거나 침묵을 지키도록 強要하는 性格을 갖는다. 이 경우 테러리즘이 예컨대 亡命中인 政治的 反對者의 拉致, 暗殺로 나가게 되면 國際 테러리즘이 된다.

IV. 테러리즘의 構造的 原因

테러리즘의 構造的 原因에 관한 論議는 지금까지 事實 매우 貧弱하다. 필자는 여기서 두가지 原因에 注目하고 싶다. 하나는 테러리즘의 배후에는 解決되어야 할 構造的 問題 또는 爭點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爭點이 制度化된 方式으로, 말하자면 合理的인 討論을 거치거나 또는 議會民主主義的 決定過程을 통해 제대로 解消되기가 어렵다는 點에서 또 하나의 構造的 問題가 作用한다. 綜合하자면 解決되어야 할 爭點도 있지만 이것을 制度化된 方式으로 解決하기가 어려운 構造的 狀況에서 테러리즘은 나타난다. 이 점에서 테러리즘은 새로운 社會運動과 發生論的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優先 西歐의 맥락에서 構造的 原因을 생각해 보겠다. 이 경우 필자는 테러리즘의 登場과 새로운 社會運動의 登場을 같은 理論的 설명모델로 說明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問題의 核心은 戰後 西歐社會가 自由競爭的, 政黨議會民主主義的, 資本主義的, 福祉國家的 秩序를 구축하는데 놀랄만큼 成功했고, 勞動者階級을 福祉國家의 틀안으로 統合하는데 成功했지만, 이 틀에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實踐的 要求와 主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있다(Offe, 1987a). 다소 부연하자면 전후 西歐社會의 秩序에 核心的인 것은 經濟成長, 分配, 安定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政治 모델에 의하면 經濟成長에 基礎하여 個人的·集合的 配分位置를 向上시키고 社會的 地位의 法的保護를 確實히 하는 것이 主要關心이 된다. 또 社會的-政治的 葛藤解消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團體交涉, 政黨競爭, 代議的 政黨政府가 되며 어느 경우에도 專門化되고 包括的이며 高度로 制度化된 利害組織들이 서로 剋制하여 問題를 解決해 간다. 그러나 이런 福祉國家的 體制運營의 基本들은 生産爲主의 再分配指向的 技術관료적 合理性에 基礎하고 있고 또 이에 의해 모든 問題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대로 다룰 수 없는 實踐的이고 質的인 問題가 나온다는 것

테러리즘'은 결국 抵抗勢力에게 恐怖와 不安感을 깊게 擴散시킴으로써 이들이 權威主義 體制에 복종하거나 침묵을 지키도록 強要하는 性格을 갖는다. 이 경우 테러리즘이 예컨대 亡命中인 政治的 反對者의 拉致, 暗殺로 나가게 되면 國際 테러리즘이 된다.

IV. 테러리즘의 構造的 原因

테러리즘의 構造的 原因에 관한 論議는 지금까지 事實 매우 貧弱하다. 필자는 여기서 두가지 原因에 注目하고 싶다. 하나는 테러리즘의 배후에는 解決되어야 할 構造的 問題 또는 爭點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爭點이 制度化된 方式으로, 말하자면 合理的인 討論을 거치거나 또는 議會民主主義的 決定過程을 통해 제대로 解消되기가 어렵다는 點에서 또 하나의 構造的 問題가 作用한다. 綜合하자면 解決되어야 할 爭點도 있지만 이것을 制度化된 方式으로 解決하기가 어려운 構造的 狀況에서 테러리즘은 나타난다. 이 점에서 테러리즘은 새로운 社會運動과 發生論的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優先 西歐의 맥락에서 構造的 原因을 생각해 보겠다. 이 경우 필자는 테러리즘의 登場과 새로운 社會運動의 登場을 같은 理論的 설명모델로 說明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問題의 核心은 戰後 西歐社會가 自由競爭的, 政黨議會民主主義的, 資本主義的, 福祉國家的 秩序를 구축하는데 놀랄만큼 成功했고, 勞動者階級을 福祉國家의 틀안으로 統合하는데 成功했지만, 이 틀에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實踐的 要求와 主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있다(Offe, 1987a). 다소 부연하자면 전후 西歐社會의 秩序에 核心的인 것은 經濟成長, 分配, 安定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政治 모델에 의하면 經濟成長에 基礎하여 個人的·集合的 配分位置를 向上시키고 社會的 地位의 法的保護를 確實히 하는 것이 主要關心이 된다. 또 社會的-政治的 葛藤解消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團體交涉, 政黨競爭, 代議的 政黨政府가 되며 어느 경우에도 專門化되고 包括的이며 高度로 制度化된 利害組織들이 서로 剋制하여 問題를 解決해 간다. 그러나 이런 福祉國家的 體制運營의 基本들은 生産爲主의 再分配指向的 技術官僚적 合理性에 基礎하고 있고 또 이에 의해 모든 問題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대로 다룰 수 없는 實踐的이고 質的인 問題가 나온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이런 問題들은 처음부터 아예 議事決定의 아젠다로부터 排除되거나 또는 주변화되는 傾向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새로운 社會運動이 태동하고 테러리즘도 또한 태동한다는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戰後의 秩序改編에서 勞働者階級의 分配와 參與 欲求는 制度的으로 實現되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主張들, 예컨대 物質的 재화를 넘어서는 精神的 福祉, 人間的인 삶을 위한 人間尊重의 價値, 生活世界의 視覺, 自然과의 조화를 위한 環境問題, 生態學의 問題, 갈수록 軍事化되고 高度의 破壞力을 갖는 원자무기의 危險을 벗어나 진정으로 平和를 누리는 問題, 人間の 自律性, 이런 爭點들은 이런 政治의 모델로는 제대로 다루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단적으로 말해 이 爭點들은 商品이나 財貨의 形式으로, 또는 기술관료적으로 測定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制度化된 福祉國家의 合理性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實踐的이고 미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Offe, 1987 b).

새로운 社會運動은 이런 爭點들을 가지고 議會民主主義的, 福祉國家的 制度的 限界에 挑戰해 가고 있거니와, 抵抗的 테러리즘 역시 구조적 原因은 유사하다. 콜린스키(E. Kolinski, 1988, p. 64)가 독일을 예로들어 指摘했듯이, “西獨의 최근 테러리즘과 1970年代 이래의 爭點中心의 議會밖의 抵抗運動사이에는 緊密한 構造的 聯關”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둘은 다같이 既存體制를 넘어서서 새로운 體制를 指向해 가는 政治的 動機를 가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社會運動은 合法的 手段과 方式으로 非制度的 政治의 領域을 개척함으로써 이런 動機를 實現하려는 것임에 반해, 테러리즘은 非合法的 手段에 依存한다는 것이다(Offe, 1987 a, p. 69). 따라서 테러리즘은 훨씬 더 強적되고 극단적인 世界解釋을 수반하는 傾向을 보인다.

이러한 西歐社會의 構造的 限界에 대한 통찰은 테러리즘의 登場에 그럴만한 理由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正當化시키는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構造的 理由에 대한 對應이 만드시 테러리즘으로 나와야 할 理由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테러리즘은 國家統制를 強化시키고 輿論의 이반을 深化시킴으로써 민학의 潛在力을 損傷시킬 可能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통찰로부터 나아가 國家테러리즘의 基本 性格을 문명사적으로 살

피보는 것도 可能할 것처럼 보인다. 西歐社會에 그동안 確固히 制度化되었고, 世界에로 擴散中인 근대적 合理性은 세계 정복을 指向해 가는 科學技術的, 官僚的, 手段的인 性格을 強하게 지니고 있다.

社會體制는 그 힘에 의해 自然을 정복하고 人間關係를 統制하며 人間の 內面的 動機, 欲望, 熱望까지도 計劃하고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目的合理性의 人間 社會적 性格은 이미 막스 베버가 갈파한 바 있거니와, 최근 크라우스 오페(C. Offe, 1987 b)가 正確히 指摘한 것처럼, 이 合理性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選擇, 自由, 福祉 등을 提供해 주면서도 이 合理性의 否定的 結果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自今부터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點에서 또한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익질적이지만 現代産業社會는 많은 成功, 發展, 自由, 選擇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만큼 成功하고 있기 때문에 그 發展을 可能케 하는 構造的 틀을 당연시하게 된다.

즉 그 틀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構造的 틀이란 모든 問題를 目的合理性의 制度化된 方式으로 진단하고 解決하려는 方式을 뜻한다.

오늘날 産業社會는 이 틀 안에서 未曾有의 成功을 거두고 있고 이 틀에서 派生된 問題까지를 同一한 合理性의 擴大로 解決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世界 征服的, 技術科學的 合理性의 擴大만으로는 問題가 解決될 수 없음을 알리는 새로운 要求, 새로운 感受性, 새로운 運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文明史的 立場에서 볼 때, 國家 테러리즘은 바로 世界征服的이고 體制維持的이며 手段的이고 技術的인 近代의 合理性을 ‘現實政治’의 이름하에 盲目的으로 追求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 近代의 手段合理性의 否定的 結果가 國家테러리즘의 形態로 分明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V. 微視行爲的分析

다음으로는 테러行爲에 關聯된 爭點으로 關心을 옮겨보겠다. 構造的 原因이 作用하고 歷史的·政治的·文化的 맥락이 作用한다 하더라도, 테러行爲者는 極히 少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類型의 사람이 왜, 어떻게 테러行爲를 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여기서 主된 課題이다.

피보는 것도 可能할 것처럼 보인다. 西歐社會에 그동안 確固히 制度化되었고, 世界에로 擴散中인 근대적 合理性은 세계 정복을 指向해 가는 科學技術的, 官僚的, 手段的인 性格을 強하게 지니고 있다.

社會體制는 그 힘에 의해 自然을 정복하고 人間關係를 統制하며 人間の 內面的 動機, 欲望, 熱望까지도 計劃하고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目的合理性의 人間 社會적 性格은 이미 막스 베버가 갈파한 바 있거니와, 최근 크라우스 오페(C. Offe, 1987 b)가 正確히 指摘한 것처럼, 이 合理性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選擇, 自由, 福祉 등을 提供해 주면서도 이 合理性의 否定的 結果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自今부터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點에서 또한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厄運적이지만 現代産業社會는 많은 成功, 發展, 自由, 選擇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만큼 成功하고 있기 때문에 그 發展을 可能케 하는 構造的 틀을 당연시하게 된다.

즉 그 틀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構造的 틀이란 모든 問題를 目的合理性의 制度化된 方式으로 진단하고 解決하려는 方式을 뜻한다.

오늘날 産業社會는 이 틀 안에서 未曾有의 成功을 거두고 있고 이 틀에서 派生된 問題까지를 同一한 合理性의 擴大로 解決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世界 征服的, 技術科學的 合理性의 擴大만으로는 問題가 解決될 수 없음을 알리는 새로운 要求, 새로운 感受性, 새로운 運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文明史的 立場에서 볼 때, 國家 테러리즘은 바로 世界征服的이고 體制維持的이며 手段的이고 技術的인 近代의 合理性을 ‘現實政治’의 이름하에 盲目的으로 追求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 近代의 手段合理性의 否定的 結果가 國家테러리즘의 形態로 分明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V. 微視行爲的分析

다음으로는 테러行爲에 關聯된 爭點으로 關心을 옮겨보겠다. 構造的 原因이 作用하고 歷史的·政治的·文化的 맥락이 作用한다 하더라도, 테러行爲者는 極히 少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類型의 사람이 왜, 어떻게 테러行爲를 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여기서 主된 課題이다.

優先 指摘할 點은 테러行爲者들은 그들 特有的 信念體系를 갖는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信念體系란 “一連의 렌즈와 같은 것으로서 物理的 - 社會的 環境에 關한 情報를 收容하면서 個人을 環境으로 引導해가고 그 意味를 規定해 주며 그 特性을 確認해 주는 機能을 한다” (Holsti, 1967, p.18). 테러리즘에서 一般的으로 發見되는 信念體系는 매우 높은 抽象性을 가지며 非個人화된 統合된 “敵”의 概念을 發展시킨다. 예컨대 이탈리아 ‘붉은여단’의 境遇, 敵은 “多國的 帝國主義的 國家”(SIM)로 把握되고, 國家는 國民을 代表하는 自律性을 갖는 組織이라기 보다는 外部勢力의 代行者로 看做된다. 즉 世界를 說明하는 매우 抽象화된 多樣한 範疇들이 서로 얽혀 因果的인 說明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컨대 獨逸의 赤軍派(RAF)는 매스미디어를 資本主義 經濟의 道具로 보면서 獨逸社會民主主義 體制를 美國 資本主義와 軍事的 霸權의 下手人 程度로 본다. 물론 敵의 概念은 테러리즘의 理念的 指向에 따라 顯著히 달라진다. 신파시스트 테러 또는 美國의 人種主義的 우익테러의 境遇 敵 概念은 위와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테러리즘에서 發見되는 信念體系는 이 世界를 善과 惡의 對立으로 보는 黑白論理를 基底에 「잘고 있으며」 抽象化되고 非個人화된 敵의 統合的 實體를 가정하고 있다. 또한 暴力의 使用은 惡을 追放, 即 敵의 崩壞를 위해 不可避하다는 論理를 發展시킨다.

다른 하나의 特性은 軍事的 戰爭 멘탈리티이다 (Crenshaw, 1988, p.17). 테러리즘은 戰爭으로, 테러行爲者는 軍人으로, 테러組織은 軍隊로 描寫된다. 「붉은여단」 「敵軍派」와 같은 組織 名稱이 이미 이런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敵과 國民과 테러리즘의 關係에서 테러行爲는 國民을 위한 鬪爭으로 說明되고 그 國民의 지지가 없는 境遇에는 “第3 世界의 解放”이라는 더 巨視的인 目的論이 내세워진다.

세번째의 特徵은 信念體系가 매우 閉鎖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變化에의 저항이 強하다. 信念의 一貫性을 強調하는 나머지, 眞實하다고 받아들인 것과 모순되는 情報는 이에 拒否한다. “테러行爲者는 그들이 信賴하는 出處의 情報만을 믿고, 그들이 믿을만한 出處는 오로지 信念을 共有하는 사람들 뿐이다” (Crenshaw, 1988, p.33).

한편, 集團心理를 強調하는 立場에서 보면, 테러리즘이 갖는 最初의 매력은 信念體系에 있는 것이 아니라 組織안의 特殊한 相互作用에 있다고 한다. 成員들 사이에 運命的인 同志感, 連帶感을 이루면서 集團規範에 完全히 承服해 가는 삶의 共

同體的 방식이 어떤 性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력울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우만(Baumann, 1977. p.14)은 “集團안에서의 充員이 먼저있고 政治的 信念은 뒤 에 나온다”고 主張한다.

그러면 어떤 動機構造를 가진 사람이 테러리즘의 共同體에 屬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관해 아직 明確한 解答은 없다. 一般的인 心理的 特性이 있는가에 대해 懷疑的인 見解가 오히려 많다. 이들의 心理狀態를 病的인 것으로 보는 視角은 잘못되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에릭슨(Erikson, 1968)의 理論을 빌려, 社會化時期 에 “基礎的인 信賴”의 構成이 안된 境遇, 世界는 보다 不安스럽고 威脅的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보다 攻撃的인 된다는 主張도 있고, 그의 “否定的 正體性”(negative identity)의 概念으로 테러行爲者의 心理構造를 說明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테러行爲者들은 極端的인 信念體系를 比較的 쉽게 받아들이고 暴力의 使用 앞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分明하다. 또 한 指導者와 追從者사이의 絕對的인 役割分化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點에서 個人化의 程度가 弱한 것이 特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테러리즘이 強한 人種的·宗教的·民族的 土臺를 가지고 있을 境遇에는 歷史的·文化的 口述文化안에서 테러리즘이 社會的으로 學習된다고 말 할 수 있다. 口述文化안에서 전수된 自由와 解放을 위한 過去의 英勇적인 鬪爭들이 多樣한 形態의 談話를 통해 學習된다는 것이다. 이 안에서 젊은世代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며 무엇에 對抗해서 싸울 것인가를 알게된다. 이리하여 個人的·集團的 正體性을 얻게 되고, 이런 學習의 結果가 테러리즘으로 自然스럽게 連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 아일랜드의 IRA, 스페인의 ETA, 또는 아랍世界의 테러리즘에는 이런 要素가 强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테러리즘의 構造的 原因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政治的으로는 軍事的 獨裁體制가 存在하고 있고 經濟的으로는 階級間的 不平等이 策화된으로서 나타나는 社會的 不均열이 構造的 原因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反體制運動이 일어나게 되는데, 테러리즘 역시 이와 軌를 같이하여 發展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抑壓的 現實에서는 테러리즘도 抵抗의 한 手段으로서 社會的 力을 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舊體制가 무너지고 政治的·經濟的·社會的 改革을 追求하는 民主化된 새로운 體制가 出帆하게 될 때 테러리즘의 終局은 고만

를 맞게 된다. 이 점은 스페인의 境遇를 보면 分明해진다. (Pollack and Hunter, 1988).

스페인 테러리즘의 대명사인 ETA는 바스크 民族運動組織이다. 바스크地方은 人種의 言語의으로 固有한 遺産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中央政府에 의한 統合에 反對하는 分離主義運動을 오랫동안 繼續해 왔다. 그러나 이 運動은 1939年 市民戰爭에서 Franco 將軍이 勝利함으로써 그後 40年동안 徹底히 抑壓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ETA라는 테러組織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多樣한 반프랑코 鬪爭과 더불어 反體制運動이 重要한 一部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TA는 바스크民族主義政黨(PNN)에 대한 不滿으로 1959年 發足되었다. 이들의 理論的모델은 “葛藤의 나선型”으로 要約된다. 이것은 $A'-R/C-A^2$ 로 表現되는데, 여기서 A' 는 ETA에 의한 最初의 鬪爭이고, R은 中央政府에 의한 抑壓이며 C는 바스크民族의 意識高揚이고 A^2 는 ETA에 의한 다음 鬪爭을 뜻한다. 따라서 모델은 $A'-R/C-A^2-R/C-A^3-R/C-A^4$ 로 繼續되는데, 함의는 抑壓者와 被抑壓者 사이의 葛藤은 나선적으로 繼續 發展해간다는 것이다.

ETA가 벌인 가장 極의인 테러活動은 1973年 當時 首魁이었던 블랑코(Blanco)를 暗殺한 것이다. 이로써 抑壓은 훨씬 加重되었지만 넓은 社會的 認定과 支持를 얻게 되었다. 또한 그 뒤 Franco가 1975年 11月에 死亡함으로써 새로운 體制의 出帆을 促進시킨 面도 있다.

그러나 1975年-77年 사이의 過渡期를 거쳐 民主化된 政府가 77年 出帆하면서 ETA의 路線에도 葛藤이 생기게 된다. 繼續 無力鬪爭에 依存할 것이냐 아니면 交渉에 의해 民族問題를 解決할 可能性을 얻어 볼 것이냐의 選擇이 要求되기 때문이다. 물론, 資料를 보면, 테러行爲는 民主化時代에도 繼續되었고, 死亡者 數는 훨씬 늘어나는 趨勢를 보인다. 그러나 運動路線을 둘러싼 葛藤은 1970年代 中葉에 深刻한 局面으로 접어든다.

結局 ETA는 1976年을 經由하여 政治鬪爭의 優位를 強調하는 ‘政派’와 武力鬪爭의 優位를 強調하는 ‘武派’로 갈라진다. ‘政派’는 새政府와의 戰略的인 協商을 考慮하는 勢力인데 反해, 武派는 모든 協商을 拒否하는 勢力이다.

武派의 기본테제는 ‘連續性’의 테제이다. 이들에 의하면, “부르조아 民主主義에로의 進化는 스페인國家의 本質的인 性格을 全然 變化시키지 않았다. 舊體制가

根據했던 眞正한 權力은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統制力을 發揮하고 있다. 政治的 變化는 單純한 상부構造的 진열품일 뿐이다”(Pollack and Hunter, 1988, p.128).

이들은 1986年 4月의 宣稱에서도 “스페인國家에서 眞正한 權力을 行使하는 者는 軍부와 寡頭制이다. 이 交涉 테이블에 우리와 같이 앉아 問題를 決定해야 할 責任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들 뿐이다.”고 主張했다.(Cambio 16, 754, 975; recited from Pollack and Hunter, p.139). 卽, 協商을 할 수도 있지만 現在의 民主政府는 眞正한 對話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理由로 ‘武派’는 軍事的 鬭爭을 正當化 시킨다.

이에 反해 ‘政派’의 立場은 加熟되는 武力鬭爭은 期待와는 달리 抑壓의 反應을 深化시키, 歷史的 退步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보고, 武力鬭爭과 더불어 民主化의 趨勢를 積極的으로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는 論理를 發展시킨다. 이 立場은 다음과 같은 陳述에 잘 드러난다.

“우리들의 差異는 行動方法의 差異가 아니라 戰略的 目標의 差異라는 것을 밝힐 必要가 있다. 武派는 體制의 全般的인 不安定을 促進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方式은 자칫하면 過去와 같은 國家形態로 우리를 되돌리게 할 것이라고 念慮한다. 우리의 目標을 到達하는데 브로썬야 民主主義는 利得이 될 수 있는 하나의 段階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recited from Pollack and Hunter, p.129).

그러나 實際行動方式에서는 테러리즘이 廣範圍하게 活用되었다. 拉致, 사보타지, 銀行強盜, 工場攻擊등은 그만두고 ETA에 의한 테러死亡者數만 가지고 볼 때 프랑코時代의 死亡者는 모두 43名에 不過했으나 1977年—86年間의 民主化時期에는 434名으로서 무려 10倍가 增加했다. 特히 1978年—80年 사이에 死亡者數가 顯著히 늘어났다.

이런 狀況에서 1981年 2月 23日 突發的으로 發生한 것이 바로 右翼 軍部에 의한 쿠데타試圖였다. 이들 쿠데타勢力의 가장 큰 不滿은 急増하는 分離主義, 테러리즘에 대해 自由民主政府가 無能하다는 것이었다. 이 試圖는 곧 失敗로 끝났지만, ETA 테러리즘에 대한 一般市民의 憤怒와 非難은 暴發的으로 터지기 始作했으며, 이것은 곧 갈등의 螺旋形的 發展에 明白히 限界가 있다는 點을 分明히 해준 셈이 되었다. 이 危機의 瞬間을 經由하면서 ETA의 ‘政派’는 武裝鬭爭을 公武的으로

拋棄하게 되고 政治的 協商에 注力하게 되었다.

그러나 훨씬 더 硬直되고 極端的인 信念體系를 지키고 있는 ‘武派’는 政治的 協商을 武力으로 妨害하면서 테러리즘에 繼續 依存했지만, 狀況은 不可避하게 不利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政府의 反테러政策이 精巧하게 發展할 뿐 아니라, 隣接 國家(불란서)의 監視活動도 強化되고, 가장 重要한 點은 社會的으로 孤立된다 는 것이다. 1981年 쿠데타試圖가 있기 直前만 하더라도 바스크住民의 24%만이 ETA에 대해 反對했지만 1983년에는 64%가 反對했고 25%는 無應答으로 나왔다. 뿐만 아니라 分離主義의 테러리즘에 대한 反應으로서 右翼테러리즘이 登場하여 ‘武派’를 攻擊하는 趨勢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테러리즘이 輿論의 支援을 받지 못하던 正當성을 잃게 되고 결국 社會的으로 隔離, 疎外, 周邊化되기 쉽다는 點을 알게 된다. 스페인의 脈絡에서 보면 ETA에 의한 테러리즘은 獨裁政權 時期에는 輿論의 눈에 正當성을 가진 것이었고, 轉換期의 時期에는 바스크民族問題의 活性化를 위한 手段으로서 認定 받을 수 있었지만, 民主化의 時代에서는 이런 認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1981年의 쿠데타危機를 거치면서 非妥協의 테러리즘에 대한 社會的 拒否感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VI. 맺 는 말

이제 몇가지 發見, 含意 및 未來展望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테러리즘의 登場에는 一定한 構造的 原因과 問題가 있다. 가장 深刻한 構造的 問題는 權力追求的, 世界征服的, 科學技術的, 手段的 合理性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成功, 發展, 選擇을 가져다 주는 것이 分明하지만, 또한 本質的으로 抑壓的이고 排除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國家테러리즘은 近代國家안에 내화된 이런 合理性의 否定的 結果를 가장 克明하게 드러 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런 構造的 脈絡에서 抵抗的인 테러리즘이 나오고 있는 것은 分明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正當化 될 수 없는 理由는, 西歐社會의 境遇, 새로운 政治, 새로운 合理性, 새로운 體制를 만들어 가는 길이 비록 制度繼 政治의 틀 안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民主社會의 基礎가 되는 法的權利와 裝置들을 더욱 活用 함으로써

拋棄하게 되고 政治的 協商에 注力하게 되었다.

그러나 훨씬 더 硬直되고 極端的인 信念體系를 지키고 있는 ‘武派’는 政治的 協商을 武力으로 妨害하면서 테러리즘에 繼續 依存했지만, 狀況은 不可避하게 不利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政府의 反테러政策이 精巧하게 發展할 뿐 아니라, 隣接 國家(불란서)의 監視活動도 強化되고, 가장 重要한 點은 社會的으로 孤立된다 는 것이다. 1981年 쿠데타試圖가 있기 直前만 하더라도 바스크住民의 24%만이 ETA에 대해 反對했지만 1983年에는 64%가 反對했고 25%는 無應答으로 나왔다. 뿐만 아니라 分離主義의 테러리즘에 대한 反應으로서 右翼테러리즘이 登場하여 ‘武派’를 攻擊하는 趨勢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테러리즘이 輿論의 支援을 받지 못하던 正當성을 잃게 되고 결국 社會的으로 隔離, 疎外, 周邊化되기 쉽다는 點을 알게 된다. 스페인의 脈絡에서 보면 ETA에 의한 테러리즘은 獨裁政權 時期에는 輿論의 눈에 正當성을 가진 것이었고, 轉換期의 時期에는 바스크民族問題의 活性化를 위한 手段으로서 認定 받을 수 있었지만, 民主化의 時代에서는 이런 認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1981年의 쿠데타危機를 거치면서 非妥協의 테러리즘에 대한 社會的 拒否感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VI. 맺 는 말

이제 몇가지 發見, 含意 및 未來展望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테러리즘의 登場에는 一定한 構造的 原因과 問題가 있다. 가장 深刻한 構造的 問題는 權力追求的, 世界征服的, 科學技術的, 手段的 合理性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成功, 發展, 選擇을 가져다 주는 것이 分明하지만, 또한 本質的으로 抑壓的이고 排除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國家테러리즘은 近代國家안에 내화된 이런 合理性의 否定的 結果를 가장 克明하게 드러 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런 構造的 脈絡에서 抵抗的인 테러리즘이 나오고 있는 것은 分明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正當化 될 수 없는 理由는, 西歐社會의 境遇, 새로운 政治, 새로운 合理性, 새로운 體制를 만들어 가는 길이 비록 制度繼 政治의 틀 안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民主社會의 基礎가 되는 法的權利와 裝置들을 더욱 活用 함으로써

合法的인 方式으로 이것을 追求하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이 길을 뚫어 가려는 것이 새로운 社會運動인 反面, 테러리즘은 이것을 拋棄하고 非合法的 方式에 依存한다는 點에서 正當化되기 힘들다.

(3) 테러리즘에 作用하는 象徴, 信念, 意識構造는 높은 抽象性, 硬直性, 閉鎖性, 極端性을 보인다. 流動性과 多樣性, 漸進的인 改革에의 展望이 否定되고 善과 惡, 敵과 同志가 二分法的으로 區劃된다.

(4) 테러리즘은 構造的인 抑壓이 體驗的으로 果續되는 狀況에서 抑壓의 爭點을 正常的인 意思疏通의 方式으로는 意思決定過程에 投入시킬 수 없는 構造가 作動할 때 正當性을 얻을 수 있다. 특히 人種的, 宗教的, 民族的 土臺위의 테러리즘은 이 境遇 강한 潛在力을 갖는다. 그러나 어느 境遇이건 合法的인 改善의 通路가 民主化過程에서 열리게 된다면, 테러리즘이 全 社會的 基盤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經驗은 이 點에서 상당히 暗示的이다.

(5) 그럼에도 테러리즘이 自體의 理念的 경직성으로 인해 繼續된다면, 輿論은 惡化되고 社會的 孤立과 周邊化가 不可避해진다. 또 國家의 統制力이 強化되기 때문에, 테러리즘이 社會變化的 觸媒劑로 機能하기 보다는 反대로 社會變革을 妨害하는 要素로 作用할 可能性이 커진다.

(6) 未來에 관해 보자면, 國際테러리즘은 이것의 抑制를 위한 國際的 協助와 單位國家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增加할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힘에는 힘” 이라는 論理가 테러리즘에도 作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家테러리즘이 多樣한 形態로 繼續될 것이다. 國家와 國家사이의 갈등을 힘이 아닌 다른 合理的 方式으로 解決하기가 어려운 現實에서, 超強大國을 包含하여 單位國家는 國家的 利益에 관련하여 暴力의 使用을 계속 檢討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힘 優位의 近代的 合理性에 의해 抑壓된 人種的, 宗教的, 民族的 爭點을 政治鬭爭으로 연결시키려는 이 世界의 많은 集團들은 더욱 效果的이고 威脅的인 테러의 開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7) 그러나 世界體制의 次元이 아닌 地域의 性格의 테러리즘은 소의된 集團의 다양한 參與를 保障하는 制度的 改革의 길이 열린다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展望해 본다. 이것은 世界體制에 연결된 爭點들의 合理的 解決은 어렵지만, 地域的 問題의 解決은 單位國家의 發展過程에 따라 可能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8) 이러한 論議의 政策的 含意는 反테러적인 政策手段의 開發 및 體系化도 重要

하지만 體制의 構造的 硬直性을 自己反省的으로 보는 視點가 隨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테러리즘을 偶發的 病理的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構造的 原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近代社會의 自己限界에 대한 症候로 보아 自己點檢의 機會로 삼는 知慧가 아쉽다는 것이다. 近代社會의 自己省察性은 이런 方式으로 增大될 수 있다고 본다.

(9) 따라서 筆者의 立場은 單純한 自由民主社會의 擁護로부터 훨씬 더 나가는 倫理觀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윌킨슨(P. Wilkison, 1986, p. 94)은 테러리즘을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重大한 挑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色彩가 어떻게 간에 民主社會안의 테러主義者들은 모든 自由民主的 價値로부터 소외된채, 體制에 極烈 반대하는 絶望的인 人들이다. 그러나 自由社會는, 概念上, 自由로운 制度와 價値를 選好하는 絶對多數의 支持를 이미 받고 있다. 이처럼 自由民主主義 政府가 보편적인 支持와 正當性을 누리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狂信的인 異端者들은 選舉鬭爭과 같은 平和的이고 合法的인 手段으로 政治權力에 影響을 주기란 不可能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政治的 테러와 같은 多樣한 暴力手段을 써서 權力에 接近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自由民主主義의 正當性에 대한 一般國民의 合意가 커지면서 이에 가장 狂信的으로 反對하는 小數가 絶望的으로 이에 抵抗해 올 可能性이 오히려 높아지는 逆說이 나타나는 것이다.

위에 지적되었듯이, 自由民主主義 體制는 이미 確立되어 있고 國民의 支持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正當性과 優越性을 確保하고 있다. 따라서 이 體制를 繼承·發展시켜야 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積極的인 努力의 一環으로서 테러리즘에 대한 構造的 洞察을 통해 自由民主主義의 體制의 限界, 缺陷, 矛盾을 反省的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 불행히도 이런 積極的인 意志는 發見되지 않는다. 이런 態度는 自由民主主義에 안주하는 것이지 이것을 構造的으로 改革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보다는 테러리즘의 構造的 原因을 살펴 이것을 새로운 合理性으로 治癒할 수 있도록 自由民主主義를 改革的으로 發展시켜가는 積極的인 倫理觀을 가진 必要가 있다고 본다.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TERRORISM IN THE MODERN SOCIETIES

by Sang Jin, Han

< Contents >

- I. THE POINTS OF DEPARTURE
 - II. THE CONCEPT AND TYPOLOGIES OF TERRORISM
 - III. STATE TERRORISM
 - IV. MACRO-STRUCTURAL ANALYSIS
 - V. MICRO-BEHAVIORAL ANALYSIS
 - VI. THE DEVELOPMENT OF THE OPPOSITIONARY TERRORISM
 - VII. CONCLUDING REMARKS
- REFERENCES

I. THE POINTS OF DEPARTURE

My discourse on terrorism proceeds on the following three positional assumptions. First, my perspective is a sociological one which attempts to combine the 'macro-structural' and 'micro-behavioral' analyses. This perspective is basically in line with what Schmid (1988, p.49) calls an 'alternative' perspective, distinguished from the 'official', 'oppositional', and 'popular' perspectives. In the suggested sociological approach the macrostructural analysis is concerned with the structural causes of terrorism, whereas the micro-behavioral analysis is concerned with such action-related factors as the belief systems, motives, ideologies, tactics, etc.

*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in terms of the objects of analysis, I put emphasis on the state terrorism as a means of system management and on the oppositional terrorism by the dissident terrorists.

Third, morally, I would like to take up a position of institutional reformism somewhat more comprehensive than a simple apologetic position of liberal democracy. This is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re are some fundamental deficiencies in the modern society from which terrorism is structurally generated.

II. THE CONCEPT AND TYPOLOGIES OF TERRORISM

Many difficulties are involved in conceptualizing terrorism due to its diversity and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the conceptual definition employ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Stohl, 1988, p.56) can be taken as a reasonable one.

As to the typologies of terrorism, I suggested, after examining the proposals by Thornton (1964), Wilkinson (1986, 1988), and Schmid (1988), a classificatory model which is composed of two axes: the first is the subject of terrorism, and the second is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errorism. I divided the first axis into the state and social groups, and the second axis into system management and system change. Table one follows from this.

< Table 1 > Types of Terrorism

Subject	Political Orientation	
	Management	Change
State	A	B
Groups	C	D

Among the four types elaborated, the most important one in terms of the multi-levelled effects is the A type, that is, the state terrorism for system management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My analysis is mostly concerned with the types A and D of terrorism.

III. STATE TERRORISM

To examine the multiplicity of state terrorism, I distinguish the concept of the system into two levels, i.e., the world system and the system as a national unit.

On the level of the world system, state terrorism can be approached bas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Stohl (1988), in which two superpowers, the USA and USSR, are seen as the most important agents of terrorism. Thus, I distinguished, as Stohl (1988) did, "terrorist cocercive diplomacy", "covert state terrorism" and "surrogate terrorism" and briefly examined each of them.

On the level of the national system, however, state terrorism involves either the conflicts between two or more hostile national governments or the domestic suppression of the oppositionary forces. The examples of the first category are the terrorist attacks between the Arab states and Israel and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from the North. The terrorist domestic suppression by the state can be well documented by such cases as Hitler, Stalin and military-authoritarian regimes in the third world.

IV. MACRO-STRUCTURAL ANALYSIS

A structural explanation of terrorism which I tried to offer in this work is based on the reasoning that both terrorism and "new social movements" today emerge from the same structural contexts and, therefore, that the theoretical model by, for instance, Claus Offe (1987a, 1987b) to explain new social move-

ments can be used to explain terrorism. This has been also implied by Kolinsky (1988, p.64) who, in analyzing the terrorism in Germany, sees "the close link between contemporary terrorism in West Germany and issue-based mobilization of extraparliamentary opposition since the 1970's". As already stated,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terrorism and new social movements, though significantly different in orientations and consequences, are nevertheless emanating from the same structural contexts. And these structural contexts can be characterized by what Claus Offe (1987b, p.11) calls "modernization deficit." Thus by using this model I attempted to show the way in which the western societies have develop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with the focus on the kinds of new system problems which began to accumulate, despite all the successes, freedoms, options and welfares achieved in this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discussion is meant to reveal the deficiencies inherent in the dominant type of western rationality which has often been described as world-dominating, power-seeking, scientific, technocratic, bureaucratic and instrumental. And the discussion goes on to show why these new practical demands and issues cannot be adequately dealt with in this framework of rationality. New social movements and terrorism may be seen as arising from this structural context of frustrations.

In my view, this discussion also reveals that state terrorism is nothing but an extremely negative manifestation of the world-dominating rationality institutionalized in the modern national state.

V. MICRO-BEHAVIORAL ANALYSIS

Yet, on the micro-level, we have to explain who becomes a terrorist and why. Structural explanation must then be supplemented by an action-theoretical analysis.

In this respect, attention is paid to the belief systems frequently associated with terrorism and its major characteristics are explained following Crenshaw' (1988) analysis. In addition, the typical group psychology as well as the motivational traits of terrorists are described.

VI. THE DEVELOPMENT OF THE OPPOSITIONARY TERRORISM

Finally, I have consciously drawn attention to the D type of the oppositionary terrorism, in particular, those terrorisms occurring in what we call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O'Donnell). In this case, of course, structural causes of terrorism differ from what we examined. In order to show this, I have examined the Spanish case centering on the activities of ETA with some care (Pollack and Hunter, 1988).

In this analysis the central analytic focus was on the diverging strategies within ETA about its relationship with the newly emerging democrat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show why and how the 'military' fraction of ETA which overwhelmingly cling to terrorism refusing any political talk with the governments, begin to lose social bases, increasingly isolated, segregated and marginalized (Pollack and Hunter, 1988).

VII. CONCLUDING REMARKS

As concluding remarks, some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briefly reiterated, the prospect of terrorism is suggested, and finally the moral position of institutional reformism is redefined and justified.

REFERENCES

Baumann, M.

1977 *Wie Alles Anfing—How It All Began: The Personal Account of a West German Urban Guerrilla* (Vancouver, Canada: Pulp Press).

Blechman, Barry and Kaplan, Stephen

1978 *Force Without War*,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e.

Crenshaw, Martha

1988 "The Subjective Reality of the Terrorist: ideological and Psycholo-

- gical Factors in Terrorism”, in Slater and Stohl (eds.), 1988.
- Gurr, Tedd Robert
1988 “Empirical Research on Political Terrorism: The State of the Art and How it Might be Improved”, in Slater and Stohl (eds.), 1988.
- Halperin, Morton et al.
1976 The Lawless State, New York: Penguin.
- Holsti, O.R.
1967 “Cognitive Dynamics and Images of the Enemy”, in J.C. Farrell and A.P. Smith (eds.), Image and Real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pp.16-39.
- Jenkins, Brian
1988 “Future Trends in International Terrorism”, in Slater and Stohl (eds.), 1988.
- Johansen, Robert
1980 The National Interest and the Human Interest, Princeton Univ. Press.
- Kolinsky, Eva
1988 “Terrorism in West Germany”, in J. Lodge (ed.), 1988.
- Lakos, Amos
1986 International Terrorism: A Bibliography,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 Lodge, Juliet (ed)
1988 The Threat of Terrorism, Brighton, Sussex: Wheatsheaf Books.
- Offe, Claus
1987a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Movements since the 1960s”, Charles Maier (ed.), Challe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Cambridge.
1987b “The Utopia of the Zero-option; Modernity and Modernization as Normative Political Criteria”, Praxis International, April.
- Pollack, Benny and Hunter, Graham
1988 “Dictatorship, Democracy and Terrorism in Spain”, in Juliet

Lodge (ed.), *The Threat of Terrorism*, Brighton, Sussex: Wheatsheaf Books.

Schmid, Alex

1988 "Goals and Objective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 Robert Slater and Michael Stohl (eds.), 1988.

Slater, Robert and Stohl, Michael

1988 *Curren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Terrorism*, London: Macmillan.

Stohl, Michael

1988 "States, Terrorism and State Terrorism: The Role of the Superpowers", in Slater and Stohl (eds.), 1988.

Thornton, Thomas Perry

1964 "Terror as a Weapon of Political Agitation", in Eckstein (ed.), *Internal War*, New York: Free Press.

Wardlaw, Grant

1988 "State Response to International Terrorism: Some Cautionary Comments", in Slater and Stohl (eds.), 1988.

Wilkinson, Paul

1986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Macmillan.

1988 "Support Mechanisms in International Terrorism," in Slater and Stohl (es.), 1988.